

밀빠진 업체에 ‘세금 붓기’ 버스준공영제 ‘제동’ 시급

/ 뉴스 초 점 /

#. 신안군 버스 요금은 13년째 1000원 (일반 기준)이다. 1300원을 받는 전남 대부분의 군과 달리 300원이나 싸다. 6개 권역으로 나뉜 54대 (50개 노선)를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대당 운송원가도 5500만원 수준으로, 1억원이 넘게 드는 해남·고흥보다도 적다. ‘완전공영제’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지역과 달리 버스기사들 외에 버스업체 사장, 임원, 관리직원 등을 따로 돌 필요도 없어 별도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버스 노선과 운행 시간도 주민들 원하대로 조정한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버스업체가 배차 시간을 줄이거나 노선을 조정하는 일도 없다.

〈관련기사 2면〉
각 지자체마다 ‘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급증하면서 최근의 버스 파업 사태를 계기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섬으로만 구성된 신안군이 군내버스를 완전공영제로 13년째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주시의 경우 2006년 이후 투입한 재정지원

승객 감소 운송수입 매년 급감
광주시 지원금 연 700억 넘는데
업체는 방만경영·도덕적 해이
신안군 ‘완전공영제’ 성공
준공영제 보완 대책 마련해야

금은 196억원 (2006년) 수준에서 395억원 (2013년)으로 뛰었다가 445억 (2014년), 508억 (2016년)으로 급등했고 지난해에는 639억원으로 올랐다. 올해도 최근 이뤄진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재정지원금이 716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반면, 시내버스 운송 수입은 1355억원 (2017년)에서 1325억원 (2018년), 1280억원 (2019년 잠정)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승객 수 감소로 운송 수입은 매년 감소하는데 투입되는 세금은 급격히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나면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준공영제인 만큼 버스업체로서는 방만 경영을 하거나,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광주시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지역 시내버스업체들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도 당기순이익의 5~7%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역 민들도 적지 않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신안군의 ‘완전공영제’가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안군은 지난 2007년부터 입자도를 시작으로 2013년 압해도까지 운행중인 시내버스 14개 업체의 버스 22대 (33개 노선)를 사들인 이후 1000원의 요금을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까지 파업이나 운행 중단 없이 순조롭게 유지·관리중이다. 이용객 수도 광주시와 달리, 완전공영제 시행 전 (20만명)에 비해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는 67만명에 달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07년 당시 여객선의 아간 운항 추진에 맞춰 대중교통체계를 재구축하면서 군내버스의 완전공영제에 나선 것”이라며 “당시에는 무모하다고 했지만, 현재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영제는 향후 인건비, 간접비 등의 증가로 인해 지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관광 전담기구 출자·출연기관 형태로 만든다

전남도, 문화관광재단서 분리

전담기구 설립이 전남도의 출자·출연기관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관광산업 전담기구 설립 방안 및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다음 달 중순께 열린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애초 이달 안에 용역보고회를 열기로 했으나 관광 전담기구 설립 방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어 일정을 늦췄다. 전남도는 관광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이를 용역 결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선호했던 관광공사 설립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수의 창출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뒷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설립안은 정부 승인이 까다롭고 예산과 경영 부담이 커 부정적인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설립·운영이 비교적 수월한 출자·출연 기관으로 사업 방향을 돌려 현 전

남문화관광재단을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도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문화관광재단 분리 필요성의 근거와 논리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남문화관광재단에는 현재 57명 (도립 국악단 제외)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관광업무 인력은 기간제 근무 인력을 포함해도 1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재단의 관광업무 분야를 분리해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용역에는 이밖에도 관광 전담기구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 출연금 규모와 자본금 출연 형태 등을 분석하고 재원 조달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용역 결과는 이 같은 점을 반영해 다음 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장관들 테이블에 수리·달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코트인 수리와 달이 인형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있다. /연합뉴스

한빛원전, 핵 폭발 직전까지 갔다

무자격자, 하나 남은 제어봉 뽑아 노심출력 17.2% 치솟아
발전팀장, 황급히 “제어봉 삽입하라” 소리쳐 ... 관리 허술

일부 원자력전문가들이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직전까지 갔다”고 평가한 ‘저출력 상태에서의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출력 급상승 사건’ 당시 제어봉을 조작 (운전)한 직원은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제어봉 조작을 감독해야 할 발전팀장 (원자로조종사 감독면허 보유자) 또한 해당 직원의 행동을 지배할 수 없는 범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21일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

여러 다발로 구성된 제어봉은 원자로 내에 삽입·인출돼 핵분열을 통제하고 출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원자로에서 긴급 상황 발생시 제어봉은 노심에 내려꽂아져 (삽입돼) 원자로를 정지시키게 된다. 제어봉이 원전 가동과 비상시 안전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인 만큼 제어봉 조작은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있는 운전원이 담당하거나, 예외적으로 원자로조종사 감독 면허 보유자의 직접적 지배 범위에서 무면허자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한빛 1호기 운전실에서 진행된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모조리 무시돼 ‘199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직전에 이를 정도’로 원자로가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한빛 1호기 운전실에서 제어봉 조작은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없는 정비팀 (제어계측팀) 직원이 담당했고, 감독자 면허가 있는 발전팀장은 정비팀 직원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없었다고 당시 한빛원전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복수의 제어봉 다발이 B다발 단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인출된 상태였는데, 무자격 직원이 하나 남은 (원자로에 삽입된) 그 제어봉까지 인출해버렸다. 이로 인해 단 1분도 안돼 노의 중성자속 출력 (노심출력)이 직전 4.8%에서 17.2%까지 치솟았다”며 “당시 현장에서 발전팀장이 무자격 직원쪽으로 뛰어가며 ‘B제어봉을 삽입하라’고 소리쳤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없는 직원은 감독자 지시를 받고 제어봉을 ‘올리거나 내리느’ 단순 오퍼레이터 역할 밖에 할 수 없다. 과학계 제어봉을 인출하면 원자로 출력이 급상승하게 되는데, 무자격 직원은 원전 전체의 안전과 위험성을 판단하고 조치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안위 관계자 역시 “무자격 직원 A씨는 감독자 지시를 받고 제어봉을 조작했다고 진술하고, 감독자는 ‘내 지시 없이 A씨가 하나 남은 제어봉을 인출시켜버려 결과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최근까지 진술했다”며 “수사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수원은 이날 오전 한빛 1호기에서 일어난 저출력 상태에서의 원자로 출력 급상승 사건에 대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직전까지 갔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과한 주장이다. 한빛 1호기는 제어봉 인출이 계속됐다고해도 원자로 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병섭 박사 (원자력공학)는 “어제 오늘 수차 언급한 대로 ‘한수원이 실수로 (핵)폭탄을 만들기 직전까지 갔다가 운이 좋게 정지시켰다는 평가가 정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Mercedes-Benz Certified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 번, 새롭게 보증하다

-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 국내 수입차 최대 21개 전시장 보유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국내 최초 세계적인 품질 평가기관 TÜV 검수 및 인증 완료
 - 1년 / 2만km 무상 보증 수리 프로그램 (1년 / 2만km 선드래 적용)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지금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광주 전시장 방문 하시면 특별한 경품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전시장 방문고객 특별 사은 이벤트

 - 일시 : 5월 4일~5월 26일
 - 대상 : 전시장 방문고객
 - *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 062-945-0007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